



**농협 진안군지부,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한정호)는 지난 19일 진안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2,04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은 3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기탁금은 NH농협 진안군지부 임직원들의 지역 발전과 상생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매년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기부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실천으로 보여줬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 덕치면, 올해 농번기 대비 꼼꼼히 준비**

임실군 덕치면(면장 박이순)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기증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농번기 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덕치면은 수도작과 밭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번기 농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섰다.

특히, 수급절차용 비 신규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장 기간에 걸쳐 이장회의 및 개인설명회를 통해 여러 번 설명하는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직접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농업 행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로 통해 비 안전생산을 위한 사질 방제와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등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부안 보안면,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안전교육**

부안군 보안면(면장 이철기)은 지난 19일 202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참여자 70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 활동 개시 전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 활동방법 등을 집중으로 진행했다.

이번 선발된 참여자는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등 선발기준표에 근거해 선발되어, 1월부터 11월까지 7개 구역으로 나누어 1일 3시간, 월 10일 근무조건으로 일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집중영양관리 사업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제)는 오는 2월부터 영양관리자가 필요한 어르신 60명을 선정해 찾아가는 집중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영양사 방문간호사)이 영양관리 상태가 취약한데 맞춤형 영양상담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근감소증 및 노쇠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전반적인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한다.

2025년도에는 62명을 대상으로 총 620회 영양상담을 실시 하였으며, 방문간호사와 영양사가 민협, 체성분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등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또한 국, 찌개의 영도 측정, 민성질환 관리 교육, 균형 영양식 제공 등 집중 건강·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족도 조사에서 94%의 매우 만족 응답을 얻은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성과 '결실'**

**'대통령 경축 특사' 민주 한준호 의원 이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아**

전북 전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사진)이 볼리비아 대통령 경축 특사로 파견돼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거둔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볼리비아를 방문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단기 체류 무사증 입국이 전격 확정됐다.

그동안 볼리비아는 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국민에게 비자를 요구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관광과 기업 활동의 장벽이 해소됐다.



/오만호 기자



특히 볼리비아가 K-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세계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자원 외교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사 활동 성과에 대한 첫 사례로 '국외 중심 실용 외교'의 대표적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성과로 증명하는 국정 철학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금융기관 사랑나눔, 지역공동체 연대·상생 모범사례**

**박병철 한국노총 전주지부 의장**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에 성금 기탁**

박병철 한국노총 전주지역지부 의장이 지난 16일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시에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2026년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설립 7주년을 앞두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식에서 박 의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곳에 쓰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 나눔 활동을 통해 전북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박병철 의장이 처음 제안하고 설립을 주도한 봉사단체로,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0.5%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NH해피하우스 집 고쳐주기, '사랑의 연탄 나눔', '소외계층 쌀·감지 지원'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역사회에서는 노동계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나눔 활동이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상생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과 농촌·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잠재력·성장 지원 돕는다**

**전북은행, 전주시에 후원금 1억원 기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상생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20일 전주시청 시청실에서 전주시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겨울방학 캠프 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전주시에 후원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혜경 전주시가족센터장, 박춘원 전북은행장, 조인성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겨울방학 동안 의미 있는 체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전북은행은 전주시와 협력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40명 등 총 80명을 모집했다. 후원금은 오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진행되는 3박 4일간의 겨울방학 캠프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캠프는 전주시가족센터와 함께 운영되며, 다양한 테마 체험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캠프가 다문화 아동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진로 탐색의 계기를 제공하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장수소방서, 고립소방관 비상탈출 특별훈련**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가 화재 현장에서 대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강도 생존 훈련에 구슬땀을 흘렸다.

장수소방서는 지난 1월 2주간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이 고립됐을 때 생존 귀환을 위한 고립소방관 비상탈출(Self-Survival)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탈출 기법을 폭넓게 다뤘다. 먼저 사다리를 활용한 비상탈출(Head first ladder climb)은 고온의 열기로부터 인편을 보호하기 위해 창가에서 낮은 자세로 담을 넘듯이 즉시 탈출하는 기법으로, 신속한 연속 탈출이 가능해 대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소방서는 이번 구조대원 훈련을 시작으로 현장 대원들의 개인 탈출 장비 숙달 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지역건축사회,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일, 남원지역건축사회(회장 장근홍)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원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되었으며, 연말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탁했다.

건축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전했으며,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남원지역건축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일,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5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내에 비치된 모금함에 센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남원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주택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 및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장례식장,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김제시는 김제장례식장(대표 노재근)이 20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장례식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재근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다시 나누고자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김제장례식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곽태기 기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일,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5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내에 비치된 모금함에 센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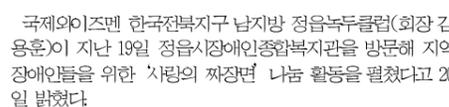
**정읍농두클럽, 사랑의 짜장면 230그릇 나눔**

국제외이즈엔 한국전북지부 남지방 정읍농두클럽(회장 김용훈)이 지난 19일 정읍시장에인종암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읍농두클럽 회원들이 참여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23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앞치미를 두르고 조리대에 참여해 정성껏 면을 삶고 소스를 볶아 그 의미를 더했다. 조리된 음식은 회원 10명이 맡아 이용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인부 인사와 함께 직접 배식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김용훈 회장은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의 작은 나눔이지만, 이 따뜻한 식사가 서로의 일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농두클럽, 사랑의 짜장면 230그릇 나눔**

국제외이즈엔 한국전북지부 남지방 정읍농두클럽(회장 김용훈)이 지난 19일 정읍시장에인종암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읍농두클럽 회원들이 참여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23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앞치미를 두르고 조리대에 참여해 정성껏 면을 삶고 소스를 볶아 그 의미를 더했다. 조리된 음식은 회원 10명이 맡아 이용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인부 인사와 함께 직접 배식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정읍=김태환 기자